

# 중국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대중화

— 葉嘉瑩의 역대 詩詞에 대한 비평을 중심으로\*

김선\*\* · 최병학\*\*\*

## <目 次>

1. 들어가며
2. 葉嘉瑩의 歷代詩에 대한 해석
3. 葉嘉瑩의 歷代詞에 대한 해석
4. 葉嘉瑩의 고전 텍스트에 대한 대중화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고전 텍스트에는 후대에 이르러서도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치가 담겨 있다. 그러한 가치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관건은, 우리가 고전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계승하고 수용하여 현대 시기의 현실에 부합되는 가치로 기능하게 할지에 달려 있다. 여기서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독창적인 성찰과 해석이 비단 개인의 연구 성취로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연구 성취가 대중에게는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역대 詩詞에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7일 한국 중어중문학회에서 주최한 “텍스트와 방법론 사이의 중어중문학”이란 제하의 학술대회에서 주저자 김선이 「세계적인 학자 葉嘉瑩의 고전 텍스트에 대한 해독과 대중화 - 唐宋詞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교신저자 최병학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葉嘉瑩의 詩學에 대한 비평을 추가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고려대학교 동아인문사회연구원 연구교수(주저자)

\*\*\* 금강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교신저자)

대한 葉嘉瑩의 성찰과 해석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고전 텍스트의 대중화를 위한 葉嘉瑩만의 인식과 의의를 공유하고자 한다.

葉嘉瑩(1924~ )은 北京 태생으로, 中國, 台灣,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무대로 삼아 평생토록 역대 詩詞의 생명력을 현대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고전 텍스트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비평가이다. 94세의 고령에도 世界 각지의 대학 강단에서 중국 고전 詩詞 작품을 서구의 문학비평 이론과 접목시켜 신선하고 독창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고전 텍스트와 대중 사이의 간극을 대폭 좁혀 온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葉嘉瑩의 고전 詩詞學的 성취에 대한 기존 연구를 대별하면<sup>1)</sup>, 서구의 문학이론으로 중국 고전시를 해석한 부분에 주목하거나 혹은 현대화된 시각으로 역대 詩詞를 평론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葉嘉瑩 詩學的 체계성을 검토하고 의의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면, 필자는 葉嘉瑩의 삶 속에 녹아있는 대중강연 실천성과에 주목하여, 葉嘉瑩이 본인의 고전 詩詞學에 대한 연구 성취를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葉嘉瑩은 현재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고전 詩詞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서구 이론을 자신만의 관점과 체득으로 녹여낸 大家로 추앙받고 있으며, 은퇴 후로도 30년 넘게 왕성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sup>2)</sup> 그녀는 한순간도 삶에 안주

- 1) 葉嘉瑩의 詩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陳金星 『論葉嘉瑩的比較詩學研究』(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碩士學位論文, 2005), 王曉崗 『葉嘉瑩的中西比較詩學研究』(廣西師範大學中文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5) 등이 있고, 詞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王磊·鍾錦 「哲學視域中的葉嘉瑩詞學」(『蘭州學刊』第5期, 2004), 趙曉輝 「論葉嘉瑩先生中西融合的詞學理論成就及其啓示」(『北方工業大學學報』第20卷第4期, 2008) 등이 있다. 국내와 일본에서는 葉嘉瑩의 詩學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대만에서는 葉嘉瑩의 학생과 지인을 중심으로 그녀의 唐宋詞 연구성취를 검토하거나 그녀에 대해 회고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는 葉嘉瑩의 詩學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유사한 관점에서 葉嘉瑩을 평가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법과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葉嘉瑩이 직접 창작한 詩詞曲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창작은 또 그녀의 詩詞 비평과 어떤 연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2) 葉嘉瑩은 비단 연구와 교육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조성을 통한 고전 詩詞 영역의 후학 양성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천진의 南開大學 당국자에 따르면, 2018년 6월 3일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인 인민폐 1,857萬元을

하지 않고 중국 고전 詩詞를 전파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심도 있는 강의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葉嘉瑩과 공동으로 『靈谿詞說正續編』을 집필한 古典文學의 대가 繆鉞은 그녀에 대해, “古今中外를 관통해서 詞의 특색을 연구하여 前人이 주목하지 않은 점을 밝힘으로써, 『人間詞話』 이후의 중국 詞學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sup>3)</sup>고 극찬하고 있다. 葉嘉瑩은 歷代詞를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서구의 다양한 비평 이론을 수용하여 역대 詞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전통 詩詞 평론가들이 모호하게 표현한 용어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냄으로써 청중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필자는 葉嘉瑩이 차세대가 고전 詩詞 작품에 흥미를 느끼도록 애써온 점과 고전 詩詞 작품이 현대에도 유사한 공감을 일으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치유할 기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이나 중국의 연구 추세와는 접근법을 달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전 詩詞에 대한 흥미 유발과 창작, 대만의 백색공포에 따른 수난, 미주지역에서의 詩詞 영어강연, 고전 詩詞의 재건을 위한 투혼 등을 주요 콘셉트로 삼아 葉嘉瑩의 생평을 고찰하기도 하였고, 葉嘉瑩의 詩詞창작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본 여성 詞로서의 성취도를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중국과 서구의 비평비교라는 측면에서 葉嘉瑩의 실제창작과 고전비평을 검토하기도 하였다.<sup>4)</sup>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학자 葉嘉瑩의 주요 저작에 보이는 자취를 통해, 그녀가 중국 고전 詩詞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 그녀가 고전 텍스트의 내재의미를 어떻게 현대화하여 세계 각지에서 전파하고 대중화하

학교 측에 기부하기로 서약했다고 한다.

3) 葉嘉瑩, 『我的自述』, 『迦陵雜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522쪽.

4) 줄고, 『현대 중국 여성 葉嘉瑩의 인생과 학문』, 『성 평등 연구』 Vol.13, 2009,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83-96쪽. 필자(주저자)는 1990년 臺灣大學에서 葉嘉瑩 선생의 『詞와 詞學』이라는 강의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 詞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최근 그녀의 자서전을 통해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를 접하고 다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에 줄고 『현대 중국 여성 葉嘉瑩의 苦難과 詩詞창작』(『중국어연구』 50輯, 2009)에서 세계적인 詩詞 비평가인 葉嘉瑩의 고난과 詩詞 창작에 초점을 맞춰, ‘상실과 고독’, ‘정치적인 필박과 학대 및 그에 따른 자살충동’, ‘慘事와 우울증’을 주요 논의키워드로 삼아, 고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떠한지, 또 고난을 어떻게 詩詞 창작으로 승화했는지 탐색한 바 있다.

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葉嘉瑩의 歷代詩에 대한 해석

葉嘉瑩은 역대 詩人の 詩를 ‘苦難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그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京에서는 전란과 가족의 이별을 겪은 데다 모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臺灣에서는 白色恐怖의 형국에서 남편의 투옥과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했으며, 캐나다 거주 시에는 큰 딸과 사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가족의 상실과 정치적인 핍박을 경험한 이후로, 葉嘉瑩은 ‘苦難’에 초점을 맞춰 詩인들이 자신의 苦難을 어떻게 詩에 표현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며, “善者は 억울하게 살고 惡者は 형통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느꼈던 좌절과 울분에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필자는 고난으로 점철된 葉嘉瑩의 인생체험과 그로 인한 독특한 시각이 역대 詩인들이 詩를 비평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詩에 대한 葉嘉瑩의 詩評에서 발견되는 이론적 토대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孟子로부터 이어지는 ‘知人論世’적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司馬遷의 ‘發憤著書說’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가 전제된 까닭에 전란이나 그로 인한 현실의 고통, 가족과의 이별 등이 葉嘉瑩이 역대 詩를 평하고 詩人の 처경을 이해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추론은 葉嘉瑩의 詩評 도처에서 반증된다. 楚辭에서 군주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하의 고통을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의 이미지로 표출한 것으로 지적하였는데<sup>5)</sup>, 君主에게 버림받은 울분에 싸여 자살한 굴원에 대한 葉嘉瑩의 평가는, 王國維가 屈原을 추앙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선택과도 맥을 같이 한다. 漢武帝에게 李陵을 변호하다 宮刑을 받은 司馬遷이 善과 惡이 전도된 현실에 분

5) 葉嘉瑩, 『漢魏六朝詩講錄』,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229쪽.

개하여 내면의 울분을 『史記』 집필에 쏟아냈다<sup>6)</sup>는 평가나, 王粲이 七哀詩에 전란 속 비참한 현실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어머니의 괴로운 심정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는 평가<sup>7)</sup>는, 모두 葉嘉瑩 자신이 목도한 전란의 고통과 가족과의 이별 체험이 司馬遷과 王粲에 대한 평가에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葉嘉瑩은 詩인들이 겪은 고난과 좌절에 주목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詩의 風格이 영향을 받는다<sup>8)</sup>고 판단하고 있다.

陶淵明에 대해서는,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빈궁한 삶을 선택하고 전원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동과 빈곤에 허덕이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연에 귀의하여 은일시인의 비조가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9)</sup> 葉嘉瑩이 보기에, 王粲의 시에는 삶의 고단한 체험이 생생하게 담겨있고 도연명의 시에는 삶에 대한 관조적인 태도가 실려 있어 詩의 깊이를 더했고 독자의 감흥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셈이다.

역대 詩에 대한 葉嘉瑩의 남다른 감상과 詩評은 주로 懷才不遇의 정치적인 좌절이나 생이별의 고통을 드러낸 시인에게서 다수 발견된다. 杜甫의 「曲江」詩를 분석하며 전란 속에서 가족과 이별한 심정을 소박하고 진실한 언어로 詩에 토로했지만 전란 속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상소를 황제에게 올린 탓에 정치적 좌절을 겪게 되었다며<sup>10)</sup> 동정 가득한 시선을 던진 데 이어, 李商隱에 대해서는, 杜甫의 영향을 받아 현실에 대한 관심을 詩에 반영하였고 실제 현실에 대한 고통과 조정의 정치적인 상황에 지대한 야망이 있었지만, 詩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가 좌절된 데 대해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약하고 함축적인 언어로 화려한 이미지를 그려내 독자에게 풍부한 연상 작용을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1)</sup>

6) 葉嘉瑩, 『漢魏六朝詩講錄』,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291쪽-292쪽.

7) 葉嘉瑩, 『漢魏六朝詩講錄』,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229쪽.

8)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25쪽.

9) 葉嘉瑩, 「從幾首詩例談中國古典詩歌中形象與情意之間的關係」,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55쪽.

10)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7쪽.

11)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37쪽.

歐陽修에 대해서는 폄적된 이후 일상에서 아름다운 자연경물을 감상하며 내면의 고통과 비애를 위로하였다고 평하였고, 蘇東坡에 대해서는 내면에 울분과 고통이 서려 있지만 정치적인 좌절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현실을 초탈하여 달관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sup> 또한 陸游의 「菊枕」詩에는 43年 전에 모친의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진 처자에 대한 애뜻한 정감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서, '感發'과 생명력을 지닌 좋은 詩로 선정하고 있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葉嘉瑩은 좋은 詩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興趣論 범주에 속하는 '興發感動'說과 그에 상응하는 시적 표현력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다음의 평가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詩人 자신의 삶이 감동적이고 내면의 감동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둘째, 詩로 전달되는 감동의 깊이와 무게는 어떠한지 그리고 궁극적인 시적 의도는 올바른지의 여부이다.<sup>14)</sup> 결국 작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가 생존했던 시기의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텍스트에만 의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평하는 자세는 경계하는 생각으로 읽혀진다.<sup>15)</sup>

### 3. 葉嘉瑩의 歷代詞에 대한 해석

葉嘉瑩은 평생 詞體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역대 詞를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 
- 12)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38쪽.
- 13)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5쪽.
- 14)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8쪽.
- 15) 이러한 이유로 葉嘉瑩은 서슬 퍼런 압제정권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암흑시대에서 생존한 시인의 才情과 인품을 폄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節操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詩學觀과 배치되는 면모를 드러냈다. 충신 屈原이 군주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 美人과 香草를 빌어 기탁한 점이나, 東漢의 王粲이 南宋의 吳文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점, 曹植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해 비분에 찬 마음을 詩에 기탁한 점, 陶淵明이 세속의 부패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田園 생활을 하며 마음속의 평정을 찾은 점 등에 대해 기존의 평가와는 다소 상이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

고전 텍스트의 대중화 영역에서 공전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교수할 때나 강연할 때 제시하는 주요 언급을 감안하면 특히 아래와 같은 주안점에 착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葉嘉瑩은 詞人の 정감과 風格 및 意境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詞 작품에 담보된 감흥과 표현력을 가장 중시하였다. 葉嘉瑩이 제기한 ‘興發感動說은 南宋 嚴羽가 주장한 興趣論에서 발단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興趣’를 ‘興發感動’의 주된 단서로 이해하였고, 嚴羽의 興趣論과 清代 王士禎의 神韻說이 清末民初 시기에 王國維가 제창한 境界說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한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sup>16)</sup> 곧 ‘感興’은 葉嘉瑩의 관점에선 詞作과 詞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이는 唐五代 시기 溫庭筠, 韋莊, 馮延巳, 李璟, 李煜 및 北宋 시기 晏殊, 歐陽修, 柳永, 蘇軾, 秦觀, 周邦彥 그리고 南宋 시기 姜夔, 吳文英, 王沂孫 등 詞史의 근간을 이루는 詞人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感興’을 주요 잣대로 삼아 그들의 생평과 시대 배경, 성격과 학문 수양, 예술성 등을 검토하고 그들의 문학적인 성취를 분석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둘째, 葉嘉瑩은 詞를 詩와 비교하여 詞體의 장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葉嘉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詞學 연구를 지속했던 繆鉞은, 詞體만이 지니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詩는 境界가 광활하고 詞는 언어가 함축적이라고 분류한 清末民初 王國維의 논조에 동조하면서<sup>18)</sup> 含意, 作法, 風格 등 방면에서 詩詞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는데, 葉嘉瑩의 詩詞에 대한 견해가 바로 王國維와 繆鉞의 견해를 수용하여 확장한 것이다. 葉嘉瑩의 분석에 의하면, 詩는 言志 관념을 토대로 자신의 뜻이나 이상을 창작한 顯의식(consciousness) 활동인 반면, 詞는 흥에 겨워 유희적인 필묵으로 기녀에게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가사를 써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無의식(unconscious) 세계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을 표출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葉嘉瑩은 詞를 歌辭의 詞, 詩化的 詞, 賦化的 詞로

16)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278쪽.

17)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7쪽.

18) 繆鉞·葉嘉瑩, 『靈谿詞話』, 台北, 國文天地, 1989年, 29쪽.

19)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10쪽-12쪽.



분류하고 있는데, '歌辭의 詞'로는 남성 詞인들이 여성의 언어로 창작한 花間詞를 대표로 삼고, '詩化的 詞'로는 詩를 짓는 作法으로 詞를 창작하여 詞의 제재와 意境을 확대시킨 蘇東坡를 대표로, '賦化的 詞'는 賦의 作法으로 詞를 창작한 주방언의 詞를 대표로 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葉嘉瑩은 음악적 요소가 농후했던 南唐의 花間詞는 '以詩爲詞'의 작법을 제창한 北宋 蘇東坡에 이르러 意境이 확장되는 계기를 잡았고, 北宋 말기 周邦彥에 이르러서는 기존 詞의 장단점이 보완되어 집대성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周邦彥은 大晟府에서 음악을 관장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음률에 정통하였고 慢調를 취하면서도 글자 수와 의미가 적절하고 典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9세에는 汴都賦를 창작하면서 經史百家의 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sup>20)</sup> 慢調의 창작기법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葉嘉瑩은 詞의 변화와 역사적인 맥락을 중시하여 前代 어떤 詞인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대와 후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작품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여 詞史의 범주에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지녔는지 짚어 내었다.

南唐 馮延巳가 北宋 晏殊와 歐陽修에 미친 영향과 그들 간의 차이점을 검토하였고, 柳永의 詞가 蘇東坡와 周邦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北宋 蘇東坡가 南宋 辛棄疾에 미친 영향과 北宋 周邦彥이 南宋 姜夔와 吳文英에 미친 영향 및 그들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宋末元初 王沂孫의 詠物詞가 지닌 특색을 검토하면서 역대 詠物詞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세하게 짚어 내었고,<sup>21)</sup> 馮延巳, 蘇軾, 周邦彥같은 대표적인 詞人을 대상으로 삼아 南唐五代에서 北宋 및 南宋까지 아우르는 詞史의 계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셋째, 葉嘉瑩은 詞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清代 常州詞派의 대표인 張惠言과 民初의 대표 詞學家 王國維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sup>22)</sup> 清代 張惠言과 陳廷焯이 溫庭筠과 韋莊의 詞에 대해 '比興風騷'의 寄託이 깃들어 있다고 평가한 예가 전통적인 감상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葉嘉瑩도 清代 張惠言의 詞에

20) 吳熊和 저, 이홍진 역 『唐宋詞通論』, 계명대학교, 1991년, 372쪽.

21)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년, 8쪽.

22)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년, 8쪽.



윤리 도덕적인 가치가 덧씌워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葉嘉瑩은 清代 常州詞派의 대표인 張惠言이 주장하는 比興寄託의 관점에서, 晚唐 溫庭筠, 北宋 周邦彥, 南宋 姜夔와 吳文英 및 王沂孫의 詠物詞가 작가 개인의 신세를 읊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우환과 그로 인한 비애를 투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전통 詞論 속 상반된 쟁론을 인용하며 심도 있게 토론하기도 하였다.

葉嘉瑩은 근대 대학자 王國維가 詞에 미학과 철학 그리고 서구의 이론을 영향을 받아 境界說을 제기하여 張惠言과 常州詞派가 추종하는 南宋詞를 비판하는 동시에 詞에 피를 토하는 것처럼 진실한 감정과 感興을 주는 표현을 담아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준 남당의 李煜의 詞나 馮延巳, 李璟, 李煜, 晏殊, 歐陽修의 詞를 분석하고 詩의 作法으로 현실을 반영한 蘇東坡와 辛棄疾의 詞를 높이 평가하였다.<sup>23)</sup> 葉嘉瑩은 王國維의 견해에 동조하여 張惠言의 윤리 도덕적 관념이나 정치적인 기준으로 詞를 해석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繆鉞와 마찬가지로 詞를 독특한 문체라 인식한 것이고,<sup>24)</sup>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詞를 평가하는 것을 비판한 셈이다. 詞를 '文以載道'의 전통적 文論에서 벗어난 유희주의의 산물이라 파악하고 있고, 시공간의 차이에 따라선 동일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도 또 다른 층위의 衍義(significance)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張惠言이 溫庭筠의 「菩薩蠻」을 賢人君子의 불우함으로 해석한 예와 清末 端木琛가 왕기손의 「齊天樂」을 북송 말년 靖康之變에 견준 사례는, 건강부회의 우를 범한 해석이며 詩歌의 함의에 담보된 자율성과 개방성 및 다양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넷째, 葉嘉瑩은 서구 이론의 관점에서 역대 詞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언어학 범주의 語順 축과 聯想 축에 근거하여 詞를 분석하였고, 解釋學 범주의 순환설을 詞에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기호학 범주의 부호설을 사용하여 詞를 세밀하게 고찰하였다. 그리고 수용미학 범주에서 독자의 창조적인 연상과 텍스트

23)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8쪽.

24) 繆鉞·葉嘉瑩, 『靈谿詞話』, 台北, 國文天地, 1989年, 30쪽. 繆鉞은 詞의 고유성이 婉弱과 豪放으로 양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왕국유의 '要妙宜修論'의 영향을 받은 데다 周濟, 劉熙載, 夏敬觀의 견해를 수용하여 詞의 '심미적이고 함축적인' 특징을 지향하고 있다.

25) 葉嘉瑩, 『中國詞學的現代觀』, 台北, 大安出版社, 1988年, 39쪽.

에 담겨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역대 詞의 미적 특질을 포착해 내었다.<sup>26)</sup> 葉嘉瑩은 서구의 해석학(hermeneutics)이 발달한 것과 관련하여, 서구사회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종교사상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聖經』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일반인에게 『성경』속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하였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고대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속 모든 글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연구하였고, 여기서 비롯된 해석학이 서방의 새로운 사상에 영향을 받아 현상학(phenomenology)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現象學은 인간의 사상의식을 연구하는 범주로서, 인간이 우주 만물의 여러 현상을 접할 때 일어나는 의도적인 의식 활동이다. 이에 대해 葉嘉瑩은, “昨夜西風凋碧樹”이란 구절은 詞人이 외부 세계의 경물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의 의식적인 활동이 일어나 나타난 결과물이다. 주체의 의식과 객체의 현상이 서로 접하여 융합될 때 주체의 의식은 사상, 감정, 연상의 측면에서 활동을 일으킨다.”<sup>27)</sup> 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葉嘉瑩은, 王國維가 『人間詞話』에서 晁殊의 詞를 인용할 때, 원래 晁殊의 詞에 등장하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쓸쓸한 가을경치의 이미지를 떠올린 게 아니라,古今의 大事業과 大學問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홀로 이상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상하였다고 해석하였다.

葉嘉瑩은 언어학자 소쉬르(saussure)의 기호학 이론에 근거하여 溫庭筠과 晁殊의 詞를 분석하였는데, 語順 축(Syntagmatic axis)과 聯想 축(associative axis)의 작용을 설명하면서 溫庭筠의 詞가 독자에게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건 서방의 解釋學에서 말하는 파생의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8)</sup> 溫庭筠의 「菩薩蠻」에 등장하는 ‘蛾眉’를 언어기호로 파악하면서, 張惠言과 陳廷焯이 溫庭筠의 詞에 ‘風騷比興’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 까닭은 聯想 축의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겼다. 『詩經』에서 말한 ‘蛾眉’는 衛莊公 부인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형용한 것이고, 屈原이 말한 ‘蛾眉’는 인품과 재능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며, 晚唐 李商隱의 詩에서 말한 ‘長眉’는 才學을 겸비한 데다 원대한 뜻과 理想을 품고 있는 사

26)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9쪽.

27)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9쪽.

28)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27쪽.

람을 지칭한다<sup>29)</sup>고 분석하고 있다.

葉嘉瑩은 영국 학자 William Empson이 제기한 모호성(ambiguity)과 다의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朱自清이 그의 저서 『Seven Types of Ambiguity』를 『多義七式』으로 번역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葉嘉瑩은 詩詞의 多義적인 특색은 어법상의 모호성에서 기인한다고 여기고, 韋莊의 「菩薩蠻」(紅樓別夜堪惆悵)에서 “美人和淚辭”란 구절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인과 이별한다”는 의미이지만, “미인이 눈물 흘리며 나와 이별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韋莊의 「菩薩蠻」(紅樓別夜堪惆悵)에서 “琵琶金翠羽, 弦上黃鶯語”란 구절의 해석이 다의적인 까닭은, 어법상의 모호성과는 상관이 없고 연상 작용에서 비롯되는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현위의 비파 소리가 피꼬리 같고 비파 소리는 여인이 말하는 소리와 같다. 혹은 현위로 퍼져오는 비파 소리가 여인이 하소연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파 소리마다 모두 그녀의 당부인 것이다<sup>30)</sup>”라고 분석하면서 詞의 多義性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葉嘉瑩은 미국의 현상학자 Hills Miller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 작가가 다양한 내용과 풍격의 작품을 창작했어도 작자의 심령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주체의식과 감정의 본질은 하나로 통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의 학자들은 南唐 李後主의 詞를 평가하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표현한 전기의 작품과 망국 후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후기의 작품이 많이 다르다고 비평하고 있지만, 葉嘉瑩은, 李後主 내면의 본질은 王國維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같다고 평가하였다. 겉으로는 전후기가 달라 보이지만, 전기에는 예민하고 진지한 감정으로 쾌락에 몰두한 것이고 후기에는 비통한 심정에 집착한 것이라<sup>31)</sup> 분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南唐 李煜처럼 망국의 고통을 겪은 宋末 詞人 王沂孫이 詠物詞 작품에 표출한 기탁을 allegory로 해석하기도 하였다.<sup>32)</sup> 그리고 淸 張惠言의 愛情詞

29)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36쪽.

30)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91쪽.

31)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167쪽.

32) 葉嘉瑩은 ‘物과 心’이나 ‘形像과 情意’의 관계를 논할 때 ‘比賦興’의 창작형식을 서양문학의 비평용어에 대입하여 설명하였다. 가령 직유(simile),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 상징(symbol), 의인(personification), 제유(synecdoche), 우의(allegory), 객관적인 물상

에 표현된 賢人과 君자의 哀怨의 표상은, 미국작가 Lawrence Lipking의 저서 『Abandoned Women and Poetic Tradition』(University of Chicago Press)에 보이는 버림받은 여성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고 간주하였다.<sup>33)</sup> 晚唐 溫庭筠가 창작한 「南歌子」에도 버림받은 여성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지적한 전례도 있다.<sup>34)</sup>

葉嘉瑩은 王國維가 『人間詞話』에서 晏殊, 柳永, 新棄疾의 詞句를 인용하고 古今의 大事業과 大學問을 이루는 사람이 거쳐야 할 세 가지 경계를 제시한 데 대해, 이러한 평론은 서방의 수용미학이나 독자 반응론과 일맥상통한다고<sup>35)</sup>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 수용미학자 Franco Merlgalli가 독자를 분류하며, 표면적으로 작품을 보는 일반 독자, 표층을 투사하여 작품의 본질을 보는 투명성의 독자, 작품을 보고 자유롭고 풍부한 연상을 하는 창조성의 독자로 구분한 데 근거하여, 王國維는 안수, 유영, 신기질의 詞를 보고 창조적인 연상을 일으킨 예가 된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葉嘉瑩은 안수의 “昨夜西風凋碧樹, 獨上高樓, 望盡天涯路”란 구절은 “어제 저녁 가을바람에 푸른 나무 시들고 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하늘가 길을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의미로서 이별과 그리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王國維가 大事業과 大學問의 첫 번째 경계로 삼은 건 독자가 창조적으로 연상한 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sup>37)</sup> 그리고 柳永이 지은 “衣帶漸寬終不悔, 爲伊消得人憔悴”란 구절은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져도 끝내 후회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초췌해지리”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수척해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王國維는 두 번째 경계로 삼아 大事業과 大學問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전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기질이 지은 “衆里尋他千百度, 驀然回首, 那人却在, 燈火闌珊處”

(objective correlative) 등을 들 수 있다. 葉嘉瑩은 우의(allegory)를 기탁으로 해석하고 王沂孫의 詠物詞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葉嘉瑩, 『古典詩詞講讀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12쪽.

33) 葉嘉瑩, 『迦陵說詞講稿』, 北京, 北京大學, 2007年, 14쪽.

34) 葉嘉瑩, 『迦陵說詞講稿』, 北京, 北京大學, 2007年, 31쪽.

35)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509-510쪽.

36) 葉嘉瑩, 『中國詞學的現代觀』, 台北, 大安出版社, 1988年, 42쪽.

37)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509-510쪽.

란 구절 또한 “무리 속에서 천백번도 넘게 그 사람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더니 문득 고개 돌리니 그 사람이 서 있네. 등불 희미한 곳에 서 있네”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어렵사리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王國維가 세 번째 경계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찬란한 곳을 선호하지만 등불이 희미한 곳에서 고독을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진정한 대학문과 대사업을 이룰 수 있다<sup>38)</sup>는 의미로 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葉嘉瑩은, 南宋 詞人 辛棄疾이 才力, 胸襟, 境地로 인해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清末 詞學家 陳廷焯의 견해에 동조하였다.<sup>39)</sup> 葉嘉瑩은 본인이 역대 詞를 감상하거나 비평할 때 ‘이론을 위한 이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는데,<sup>40)</sup> 자신은 어떤 서구이론도 액면 그대로 추종하지 않았고 반드시 전통 詞學의 기반에서 서구의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고 개별 詞人과 詞 작품의 특색에 맞게 감상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 葉嘉瑩은 역대 詞를 강론할 때 詞 작품에 담긴 감흥을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녀는 詞 작품에 담겨 있는 감흥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세심하게 파악함으로써 작품성의 고하를 판단하였다. 좋은 작품은 감흥이 크고 두터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작가의 표현력이 매우 중요하다<sup>41)</sup>고 강조하였다.

葉嘉瑩은 王國維가 『人間詞話』에서, “니체는 모든 글 가운데서 피로 쓴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였다. 後主의 詞는 진정 피로 쓴 작품이다. ... 後主는 석가나 예수가 인류의 罪를 代贖한 의미를 표출하고 있다. 그 대소는 진실로 다르다.”고 한 말을 인용한 후에, 작품 속에서 전달하는 감흥의 힘은 깊이부터 크기, 두께, 넓이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42)</sup> 葉嘉瑩은 시가에 감흥을 표출할 때 직접적인 전달이 가장 좋다고 강조하면서 南唐 李後主의 詞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남송 신기질은 자연과 人事 그리고 역사와 옛 전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感興을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43)</sup>

38)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512쪽.

39) 葉嘉瑩, 『唐宋詞名家論集』, 台北, 國文天地, 河北教育出版社, 1987年, 381쪽.

40) 葉嘉瑩, 『我的詩詞道路』,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299쪽.

41)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9쪽.

42)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507쪽.

43)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358쪽.

葉嘉瑩은 王國維가 感興을 표현한 예로 평가한 南唐 詞人 馮延巳, 李璟, 李煜과 北宋 晏殊 및 歐陽修의 詞를 선호한 반면, 南宋 姜夔와 吳文英은 감흥이 빈약하여 멀리하였다<sup>44)</sup>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南唐五代부터 北宋을 거쳐 南宋후기에 이르러선 姜夔와 吳文英을 중심으로 하는 격률과 詞人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형식적인 기교에 치우쳐 詞 작품의 풍격이 典雅해졌고<sup>45)</sup> 자신이 중시했던 ‘興發感動’의 기준에선 더욱 멀어졌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王國維가 석가와 예수에 빚댄 李煜의 詞에는 종교적인 代贖에 견줄만한 감동이 서려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葉嘉瑩은 清末民初 王國維의 詞學을 수용하여 표본으로 삼았고 역대 詞를 평가하면서 ‘感興’을 주요 비평 기준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詞學觀을 후학과 대중을 위한 강연에서 모두 쏟아내고자 애써왔다고 하겠다.

#### 4. 葉嘉瑩의 고전 텍스트의 대중화

葉嘉瑩은 평생의 에너지를 담아 낸 역대 詞 강의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였다. 북경, 대만,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중국 고전 詩詞 텍스트에 대한 참신한 해석을 토대로 학생 및 일반대중과 소통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葉嘉瑩이 근 60년에 걸쳐 강연한 세계 지역별 활동 내역을 아래에 소개한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의 강연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sup>46)</sup>

년도	教學 장소	신분
1945 중국 (北京)	佑貞女中, 志成女中, 華光女中	國文교사
1948 중국 (南京)	南京私立聖三中學	國文교사

44)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359쪽.

45) 龍瑜生, 『中國韻文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年, 102쪽.

46) 張靜, 可延濤編, 『迦陵年表』, 『文學與文化』 第4期, 2015年, 29쪽-30쪽.

1949-1950.6 台灣 (彰化)	彰化女中	國文교사
1950 台灣 (台南)	私立光華女中	國文교사
1954-1957 台灣 (台北)	台北二女中 台灣大學 (1954)	國文교사 겸임교수
1955-1966 台灣 (台北)	台灣大學: 大學國文, 歷代文選, 詩選, 杜甫 강의	전임교수
1956 台灣 (台北)	台灣 教育部 문예강좌에서 唐宋詞 選讀 강의	台灣大學 교수
1958-1969 台灣 (新北)	台灣淡江文理學院(현 淡江大學)에서 詩選, 詞選, 曲選, 陶謝詩, 杜甫詩, 蘇辛詞 강의	겸임교수
1961-1969 台灣 (新北)	詩選, 詞選	겸임교수
1961 台灣 (台北)	台灣 교육방송국에서 “大學國文” 강의	
1965 台灣 (台北)	台灣 교육방송국에서 “古詩十九首” 강의	

1966년 葉嘉瑩은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에 방문학자로 체류하며 세계적인 학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1966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강연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sup>47)</sup>

년도	教學 장소	신분
1966-1968 미국	하버드(Harvard)대학 (매사추세츠주) 미시건(Michigan)주립대학 (미시건주)	방문학자 객원교수
1969 캐나다(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	객원교수
1970 캐나다(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 중국문학사개관, 중국고문선독, 중국역대시선, 당송사선독	중신교수
1979 중국	北京대학, 南開대학, 南京대학에서 강의	
1983 중국	四川대학, 雲南대학에서 강의	
1987 台灣	輔仁대학교우회, 中華詩詞학회 초청 唐宋詞 강의	

47) 張靜, 可延濤編, 『迦陵年表』, 『文學與文化』 第4期, 2015年, 30쪽-33쪽.



1989 台灣	清華대학 초청, 台灣대학, 輔仁대학, 淡江대학에서 강의 7월 미국 하버드 대학	
1990 台灣	清華대학 초청으로 1년간 강의	
1992 중국 / 미국	중국 蘭州대학에서 강연 9월 미국 예일대학에서 신기질 詞 강의	
1993 중국	南開대학에서 “중국문학비교연구소” 창립	
1994 싱가포르	싱가폴 국립대학	객원교수
1995 미국	하버드(Harvard) 대학에서 “清詞의 부흥” 강의 오레곤(Oregon)대학에서 唐詩 강의	
1996 미국	버먼드(Vermont)대학에서 “청대詞史와 文廷式的 사”강의	
1997 미국	3월-6월 미네소타(Minesota) 대학에서 강의	
1999 캐나다 / 중국	밴쿠버중화문화센터 초청 “유영과 蘇軾의 詞, 杜甫 詩 감상”강의 / 南開大學 中華古典文化研究所 낙성식(10월)	
2000	台灣대학, 台北師大, 輔仁大學에서 강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의 台灣 中央研究院 文哲研究所에서 강연 중국 天津방송국에서 유아대상 唐詩강의 녹화	

葉嘉瑩은 2000년 이후부터 중국과 홍콩의 방송국에서 詩詞 강연 프로그램 연사로 참여하여 고전 텍스트의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강연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sup>48)</sup>

년도	教學 장소	신분
2000	台灣대학, 台北師大, 輔仁大學에서 강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강의 台灣 中央研究院 文哲研究所에서 강연 중국 天津 방송국에서 유아 대상으로 唐詩 강의 녹화	
2001	天津 방송국에서 다큐 방송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캐나다 SimonFraser 대학에서 강연	
2002	홍콩 浸會大學에서 “王國維의 詞와 詞論”강연 대만 輔仁大學 詩詞 강연 캐나다 밴쿠버에서 華語語文교사연수회에서 강연	

48) 張靜, 可延濤編, 「迦陵年表」, 『文學與文化』 第4期, 2015年, 33쪽-40쪽.

	중국 南開大學에서 “紅樓夢속의 詩詞”강연 北京 中央방송국 “百家강단”강연	
2003	중국 社會科學院에서 강연 北京 中央방송국 “百家강단” 강연 홍콩 城市大學 1학기 강좌	
2004	캐나다 밴쿠버 강연 북경 現代文學館 강연/ 北京中央방송국“百家강단”강연 南開大“葉嘉瑩교수 80세 축하 국제詞學학술대회”개최	
2005	천진방송국 詩詞 강연 대만 中央大學과 清華大學 강연 중국 北京대학 강연	
2006	중국 中山大學 강연 北京 中央방송국에서 葉嘉瑩교수 인터뷰 중국 中國圖書館에서 강연	
2007	중국 교육 TV 강연 대만대학 강연 마카오 中華詩詞學會 참석	
2008	미국 워싱턴 화교센터에서 강연	
2009	중국 南開大學과 대만 中央대학 강연	
2010	중국 정치 기업 리더 中西문화반에서 강연 글로벌 공자학원 원장 연수반에서 강연 南開대학 개최“중국 唐代문학국제학술대회”강연	
2011	南開대학에서 강연 캐나다 밴쿠버 작가협회에서 강연	
2012	대만에서 經典에 대해 낭송 녹음 중국 國務院參事室, 中央文史研究館 개최 中華詩詞낭송회에서 詩詞 낭송	
2013	캐나다 Simon Fraser 대학 강연 대만대학도서관과 대만도서관에서 葉嘉瑩 교수 90세 생평 자료전 개최	
2014	중국 南開대학에서 “葉嘉瑩교수 90세 기념과 中華詩教국제학술대회”개최 國務院總理 溫家寶 축하 서신 보냄	
2015	홍콩鳳凰위성방송'2014中華文化人物葉嘉瑩교수 선정	

葉嘉瑩은 중학교에서 國文 교사로 시작하여 대만대학 교수, 하버드 방문학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 중신교수, 중국 南開大學 中

華古典文化研究所 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학생부터 교직자, 일반대중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국 고전 詩詞를 전파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청중에게 선풍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葉嘉瑩은 30여권이 넘는 저서를 출판하였고<sup>49)</sup>, TV 특별강연과 百家講壇 프로그램 고정 강연에 초빙되어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기호와 눈높이에 맞는 詩詞를 보급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중 강연을 펼침으로써 중국 고전 詩詞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그녀는 세계 각지 중횡무진 누빈 덕에 국제적인 감각과 중국 고전 詩詞에 대한 영어강연 능력을 겸비하게 되었음은 물론 서구의 다양한 비평이론을 중국 고전 詩詞 분석에 효과적으로 접목해냄으로써, 영미 문화권이든 중화권이든 어디서나 각광받는 세계적인 학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葉嘉瑩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 과정을 대중 앞에 진솔한 태도로 여과 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대중들에게 공감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오랜 시간 반복되던 고난의 소용돌이에서 서서히 벗어난 葉嘉瑩은, 詩詞 연구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사명감으로 중국 대륙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이 캐나다와 수교를 맺은 1979년부터 방학마다 자비로 중국의 여러 대학을 돌며 강연을 하기도 하였고, 국제회의 등을 매개로 중국학자들과 교류와 소통에 공을 들이기도 하였다. 1989년 은퇴 후로는 중국 대륙에 고전 詩詞 연구 붐을 조성하는 데 치중하여 1991년 天津 南開大學에 “비교문화연구소”<sup>50)</sup>를 개설함으로써 고전 詩詞 연구메카를 조성하는 데 이르렀다.

葉嘉瑩은 명실상부한 노마드 정신으로 어느 한 곳에도 안주하지 않고 세계 각

49) 葉嘉瑩의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葉嘉瑩의 詩에 대한 저작으로는 『中國古典詩歌評論集』, 『迦陵論詩叢稿』, 『杜甫秋興八首集說』, 『阮籍詠懷詩講錄』, 『漢魏六朝詩講錄』, 『漢魏六朝詩講錄』, 『葉嘉瑩說中晚唐詩』 등이 있고, 葉嘉瑩의 詞에 대한 저작으로는 『迦陵論詞叢稿』, 『歷代詞十七講』, 『中國詞學的現代觀』, 『歷代詞十七講』, 『清詞叢論』, 『歷代詞名家論稿』, 『葉嘉瑩說詞』, 『南宋名家詞講錄』 등이 있다. 葉嘉瑩이 詩詞를 함께 논한 저작으로는 『古典詩詞講演集』, 『我的詩詞道路』, 『迦陵詩詞稿』 등이 있으며, 葉嘉瑩의 기타 저작으로는 『王國維及其文學批評』, 『迦陵著作集』, 『葉嘉瑩自選集』, 『迦陵雜文集』 등이 있다.

50) 1996년에 중국 天津 南開大學 比較文化研究所를 ‘中華古典文化研究所’로 改名하였다.

지를 무대 삼아 돌며 강연함으로써, 중국 고전 詩詞의 현대적 해석과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동학습용 고전 詩詞 낭송CD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시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국 역대 詩詞에 담긴 창작정신과 예술적 美의식을 공유하게 하는 공적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고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자임해 온 葉嘉瑩이 수년 전 TV인터뷰에서 던져 준 짚막한 述懷는, 그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고전 詩歌 학습의 쓰임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며 그들에게 스러지지 않는 원대한 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데 있다.”

## 5. 나가며

필자는 본고에서 세계적인 여성학자 葉嘉瑩이 중국 고전 詩詞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중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葉嘉瑩은 中國古典詩詞를 전파하겠다는 사명의식에서 자신이 겪은 苦難에 굴하지 않고 94세의 고령인 현재까지도 각지를 돌며 詩詞를 보급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녀는 詩人들이 정치사회적인 좌절과 고통 속에서 현실의 아픔을 詩에 어떻게 반영해내고 내면의 울분과 비애는 또 어떻게 표출해낼지에 대해 평론하였다. 때로는 버림받은 여성의 이미지로 군주에게 버림받은 비통한 심리를 비유했고, 때로는 비교의 관점에서 屈原, 司馬遷, 王粲, 曹植, 陶淵明, 杜甫, 李商隱, 蘇東坡, 陸遊, 吳文英 등이 직면한 고난과 작품창작의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詞人들을 평가할 때면, 感情과 風格 및 意境에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詞人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도 하였다. 詩詞의 장르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詞史 발전의 맥락에서 개별 詞人이 지니는 특색의 연원과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詞를 비평하는 감상방법은 比興寄託을 중시하는 청대 張惠言의 詞評처럼 溫庭筠과 韋莊의 詞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고, 서구의 美學과 哲學의 영향을 받은 근대 王國維 유형의 감상하는 방법은 馮延巳나 李煜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葉嘉瑩은 영미 비평이론을 탐구하여 중국 고전 詩詞를 연구하는 데 접목함으로써, 서구의 해석학, 현상학, 신비평학, 수용미학과 독자반응론 등의 이론을 역대 詞 분석에 적용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였다. 葉嘉瑩은 詞에 담긴 感興의 층위와 感興을 전달하는 표현력을 매우 중시하였고, 비유나 比興의 기법보다는 南唐 李後主의 詞처럼 직접적으로 感發의 생명력을 표출한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葉嘉瑩은 60년 동안 북경, 대만,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중국 고전 詩詞를 확산시키고 강연하는 데 몰두하였다. 中華 권역은 물론 영미 지역의 대학생, 대학교수부터 일반대중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고려한 詩歌 選集을 출판하여 古典詩歌를 전파하여 왔으며, 한편으론 名士의 대중 봉사를 취지로 기획된 百家講壇에 고정적으로 출연하여 일반대중 속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몸소 詩詞를 창작하고 낭송하며 전문적인 批評까지 전개하는 대학자로서 현재는 물론 후세에도 심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녀의 학생들이 중국과 대만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어, 그녀의 학문적 성취를 전수받고 고전 詩詞 대중화의 맥을 이어갈 인재를 다수 양성한 점도 높이 평가될 부분이다.

그녀가 자신의 강연에서 오롯이 고대만 보상은, 현대의 대중들이 中國古典詩歌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苦難의 아픔을 詩로 표출했던 詩人과의 만남을 통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 받는 게 아니었을까!

#### 〈參考文獻〉

- 周策縱, 「與葉嘉瑩教授論杜甫秋興八首書」, 『大陸雜誌』 50:6, 民國64年.  
 葉嘉瑩, 『迦陵論詞叢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年.  
 葉嘉瑩, 『中國古典詩歌評論集』,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82年.

- 葉嘉瑩, 『迦陵論詩叢稿』, 北京, 中華書局, 1984年.
- 葉嘉瑩, 『杜甫秋興八首集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年.
- 葉嘉瑩, 『唐宋詞十七講』, 湖南, 岳麓書社, 1989年.
- 葉嘉瑩, 『中國詞學的現代觀』, 湖南, 岳麓書社, 1990年.
- 葉嘉瑩, 『阮籍詠懷詩講錄』, 天津, 天津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王國維及其文學批評』,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清詞叢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我的詩詞道路』,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歷代詞名家論稿』,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7年.
- 葉嘉瑩, 『葉嘉瑩說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年.
- 葉嘉瑩, 『迦陵著作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 葉嘉瑩, 『漢魏六朝詩講錄』,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 安易, 「葉嘉瑩詞學理論新框架初探」, 第3卷 第2期, 2001年.
- 葉嘉瑩, 「從中西詩論的結合談中國古典詩歌的評賞」,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 葉嘉瑩, 「從幾首詩例談中國古典詩歌中形象與情意之間的關係」, 『古典詩詞講演集』,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出版, 2001年.
- 王磊·鍾錦 「哲學視域中的葉嘉瑩詞學」, 『蘭州學刊』 第5期, 2004年.
- 張幼良, 「葉嘉瑩與『古詩十九首』研究」, 『雲夢學』, 2004年.
- 葉嘉瑩, 『南宋名家詞講錄』,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5年.
- 葉嘉瑩, 『葉嘉瑩自選集』,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5年.
- 陳金星, 『論葉嘉瑩的比較詩學研究』, 四川大學文學與新聞學院碩士學位論文, 2005年.
- 王曉崗, 『葉嘉瑩的中西比較詩學研究』, 廣西師範大學中文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5年.
- 徐志嘯, 「葉嘉瑩先生年表」, 『淮陰師範大學學院學報』, 2006年.
- 汪豔菊, 「傳統與現代的融合——評葉嘉瑩先生的古典詩歌研究」, 『湖南文理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 王建浩, 『葉嘉瑩“興發感動”說初探』, 天津師範大學比較文學碩士論文, 2007年.
- 葉嘉瑩, 『迦陵詩詞稿』, 北京, 中華書局, 2007年.
- 徐志嘯, 「中西詩論之比較——葉嘉瑩中西詩學研究之闡釋」, 『職大學報』, 2007年.
- 徐志嘯, 「用西方理論和方法解析中國古代詩詞——葉嘉瑩中西詩學研究之闡釋」, 『社會科學』, 2007年.
- 徐志嘯, 「葉嘉瑩對傳統詩學研究的貢獻」, 『中國文化研究』, 2007年.

- 金 鮮, 「중국 현대 女性詞人 沈祖棻의 역경과 극복양상」, 『중국어문학지』 제28집, 2008年.
- 葉嘉瑩, 『葉嘉瑩說中晚唐詩』, 北京, 中華書局, 2008年.
- 葉嘉瑩, 『迦陵雜文集』,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年.
- 趙曉輝, 「論葉嘉瑩先生中西融合的詞學理論成就及其啓示」, 『北方工業大學學報』第20卷第4期, 2008年.
- 金 鮮, 「현대 중국 여성 葉嘉瑩의 인생과 학문」, 『성 평등연구』 Vol. 13,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9年.
- 金 鮮, 「현대 중국 여성 葉嘉瑩의 苦難과 詩詞창작」, 『중국학연구』 50輯, 2009年.
- 張春華, 『葉嘉瑩中國古典詩詞詮釋體系研究』, 山東大學文藝學博士論文, 2009年.
- 張 冬, 『葉嘉瑩“興發感動”說研究』, 河南大學文藝學碩士, 2010年.
- 賈 娜, 『傳統解杜與葉嘉瑩解杜』, 遼寧師範大學文藝學碩士, 2011年.
- 齊益壽, 「試說『錦瑟』是「自述贊」詩：自悲亦自賞，詩心兼史膽—從葉嘉瑩先生詮釋與接受李商隱詩得到的啓發」, 『印刻文學生活誌』 12:1, 2015年.
- 張靜, 可延濤編, 「迦陵年表」, 『文學與文化』第4期, 2015年.
- 李明陽, 喬川, 「聰明文思光宅天下一葉嘉瑩與二十世紀中國詩學思想史」, 『國文天地』 32:1, 2016年.
- 孟俊英, 『「葉嘉瑩說杜甫詩」與當代杜詩教學』, 華中師範大學教學(語文)碩士論文, 2016年.
- 楚國帥, 『新批評視野中的葉嘉瑩詩論研究』, 山東藝術學院文藝學碩士論文, 2017年.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Popularization of Chinese Classical Texts  
- Focusing on Ye Jiaying's Criticism of Classical Poetry

Kim, Seon / Choi, Byeong-Hak

Ye Jiaying persevered in the face of hardship, adhering to the belief of disseminating Chinese poetry. At the age of 94, she still stood on the rostrum to impart poetry, and trained many talented person. This paper told how Ye Jiaying, a global female scholar,



interpreted classical poetry. She not only explained how the poet expressed his indignation and sadness through poetry when facing the hardships of life and political and social setbacks. Ye Jiaying used the image of abandoned wife to describe the poet's depressed psychology abandoned by the monarch. She commented on the hardships faced by Qu Yuan, Sima Qian, Wang Can, Cao Zhi, Tao Yuanming, Du Fu, Li Shangyin, Su Shi, Lu You and Wu Wenying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etry creation.

She combed the injustice in the poet's heart delicately. It also revealed that modern people can seek spiritual comfort and healing by appreciating ancient poetry and combining suffering with similar experiences of poets. Ye Jiaying analyzed the differences of the writer's emotion, style and artistic conception, and found out the poet's life and era background, character, learning accomplishment and artistry.

Ye Jiaying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yle of Ci, and combed the origin and influence of the writer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history. Ye Jiaying said that Zhang Huiyan in Qing Dynast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bixingjituo" and was suitable for appreciating Wen Tingyun's and Wei Zhuang's works. Wang Guowei's theory in modern times was influenced by western philosophy and aesthetics, which was suitable for appreciating the works of Feng Yansi and Li Yu. Ye Jiaying explored the western critical theory, and used Tang and Song dynasti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oetry from the perspectives of Western Europe's hermeneutics, phenomenology, new criticism, reception aesthetics and reader response theory. Ye Jiaying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degree and expression of feeling in poetry, and highly appraised works that directly conveyed the vitality of feeling like Ci of Li Houzhu in the Southern Tang Dynasty.

Ye Jiaying has guided traditional poetry in Beijing, Taipei, Canada, the United States, Tianjin and other countries for 60 year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Chinese classical poetry.

Key words: Ye Jiaying, Classical Poetry, Ci Poetry, Interpretation,  
Popularization

이 논문은 2019년 1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2월 2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